

태풍의 왼쪽 위치해 풍속 약해졌다

태풍 '힌남노' 예보와 달리 광주·전남 피해 적은 이유는

진도 초속 최대 41.3m 바람...광주는 13.5m 이하
위력 충분히 강했지만 배수시설 등 예방 대책 효과

'역대급 위력'으로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보됐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광주·전남에는 비교적 적은 피해만을 남겼다.

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힌남노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교통 시설물 파손, 방파제 파손 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광주 55건, 전남 170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이는 위력이나 이동경로 면에서 비수했던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비교해 피해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미는 당시 전국에서 131명의 인명 피해와 4조200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상륙 당시 최저 해면기압 955.9hPa(헥토파스칼)을 기록했다. 기압이 낮은 곳으로 바람이 빨라들어가는 태풍의 특성상 hPa 수치가 낮을수록 더욱 강한 바람이 분다.

힌남노의 해면기압은 지난 1956년 태풍 '사라'(951.5hPa), 2003년 '매미'(954hPa)에 이어 역대 3위의 위력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었지만 불타도 결코 위력이 약한 태풍은 아니었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다만 태풍이 경남 거제 인근에 상륙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은 태풍 진행방향 왼쪽인 '가항 반원'에 들었다. 가항 반원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편서풍·무역풍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서로 부딪혀 풍속이 약해진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의 최대 풍속은 예보했던 것보다 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고흥, 완도 등 전남 남해안 지역은 당초 최대 초속 60m의 강풍이 불 수 있다고 예보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안 가거도 초속 42.3m, 진도 수리 초속 41.3m 등 비교적 낮은 위력의 바람이 분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의 광주·전남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20~30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으나, 광주에서는 초속 13.5m 이하의 바람만 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강수량도 예상보다 적었다. 당초 전남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50~10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었으나 실제로는 여수 53mm, 고흥 41.6mm 등 비교적 약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 또한 광양 백운산 234.5mm, 완도 청산도 233.5mm, 진도 215.7mm, 완도 보길도 208mm 등 남해안 지역에 집중됐다. 광주에는 50.7mm의 비가 내리는 데 그쳤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힌남노는 충분히 위력이 강했으며 그다지 빠르게 약화되지도 않았다"며 "피해가 적었던 데에는 사회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풍 '매미' 때와 달리 최근에는 배수 시설 등 사회적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6일 광주시 남구 송촌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농민이 파손된 지지대를 손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반시설 성능이 좋아졌으며, 피해 예방 대책이 충실하게 이뤄져 비교적 적은 피해만 입는 데 그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4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광주시, 41년만에 공식 해제

수질 보전 민관협의체 만들기로

무등산자락에 자리잡은 광주 제 4수원지가 41년 만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식 해제됐다. 광주시는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의견을 받아들여 수질 보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환경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광주시는 6일 '북구 청풍동 제4수원지 일대 9.7km를 지난 5일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4수원지는 석곡전을 막아 1967년 준공됐으며 198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근래 들어 취수 기능이 떨어진 데다 지난해 5월 각 화정수장 폐쇄 결정으로 수원지 존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됐다.

지난해 들어 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알려지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 4수원지가 국립공원 구역에 묶여 있더라도 상수

원보호구역에서는 일단 풀리는 만큼 토지주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배어난 경치를 밀친 삼아 카페·펜션 건축 등 개발 행위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또한 갑작스럽게 취수원이 필요해질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보호구역 해제는 선부르다는 주장도 됐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시·북구·무등산국립공원·환경단체·마을주민단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4수원지 일원의 수질과 환경을 지속 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7일 4수원지 청풍삼터에서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4수원지를 지속가능한 생태 공간으로 보존하는데 민관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지킴이 시민연대, 북구청 및 화암마을 주민과 함께 정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오염원 관리를 운영해 제4수원지를 앞으로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양금덕 할머니 관련 결정도 기약없이 미뤄져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안해

순천 출신 김성주(93) 할머니에 이어 나주 출신 양금덕(93) 할머니 관련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강제매각) 결정도 기약없이 미뤄졌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 민사2부는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미쓰비시 측은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자산을 팔아 배상받게 해달라'는 할머니들의 주장을 원심(대전지법)이 받아들여, 부당하다며 지난 5월 6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날은 재항고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시점이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리가 진행되고 선고 시점은 그만큼 늦어

지게 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모임 측은 "전법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정할 것도 대법원이고, 배상을 미루자 자산 압류 결정을 한 것도 대법원이었다"며 "심리할 필요도 없이 조속히 현금화 명령을 확정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대법원에서의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정부가 '민간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구실로 일본 측에 강제동원 배상 관련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신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외교부 주도로 진행됐던 강제동원 관련 '민간협의회'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는데,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일부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일본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인 뒤 사건에 마칩표를 찍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결국 무산

명진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무산됐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 제출한 '명진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신청'을 반려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명진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고 학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진고는 2023 학년도에도 여고로 유지된다.

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학교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교법인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 과정 운영에서도 학교의 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종합검토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광산구 지역 여고 사립학교인 명진고는 AI(인공지능) 선도 학교로서 남학생에 대한 수요가 있고, 여학생만으로는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다며 지난 6월 남녀공학 전환을 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 학교는 교사 보복 해임 논란과 전 이사장 자녀들의 교감·교사 재직, 부정·비리 등으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학생들이 진학을 기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아파트 방송 듣고 차량 빼러갔다가 지하 주차장서 7명 실종·1명 사망

포항서 어처구니없는 참사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에서 침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7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다.

6일 포항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수색을 위해 배수 작업을 벌

였다. 당국은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아파트 단지 1차와 2차에 사는 이들 주민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 후 차량 이동을 위해 나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실은 이날 오전 6시 전후로 1·2차 주차 관련 안내 방송을 했다.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1·2차 방송과 3차 방송 사이가 한 20분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갑자기 내용이 바뀐 건 그만큼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고, 아무도 상황을 예측 못 했다"고 말했다.

침수된 지하 주차장은 길이 150m, 너비 35m, 높이 3.5m 규모로 차량 1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전 9시 46분께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나간 66세 여성이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들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과 함께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 여성은 실종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포항에서는 사유 시설 피해도 잇따라 주택 8500호와 상가 3400동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수익 - 380만 ▶ 연 수익 - 4,560만 ▶ 매가 - 6억7천 ▶ 용자 - 3억6천 <p>중심사업,유흥가능,전용 100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 (용자 7억)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 rowspan="5">광주</td> <td>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td> </tr> <tr> <td>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td> </tr> <tr> <td>북구 신동 (아파트) 점단지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td> </tr> <tr> <td rowspan="3">전남</td> <td>광산구 안정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td> </tr> <tr> <td>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td> </tr> <tr> <td colspan="2">담양군 무정면 (주택)▶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	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	북구 신동 (아파트) 점단지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	전남	광산구 안정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	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	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담양군 무정면 (주택)▶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	
광주	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													
	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													
	북구 신동 (아파트) 점단지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													
전남	광산구 안정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													
	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													
	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담양군 무정면 (주택)▶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														
010-6670-9800		062-382-5500												